

노암 촘스키의 인간과 사상

강 명 윤
고려대

1. 들어가기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기본적으로 언어학자이지만, 심리학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정치평론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언어학에서 그는 현대언어학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철학 및 심리학의 방면에서는 심성주의(mentalism)과 합리주의를 가장 설득력있게 주창한 뛰어난 사상가이다. 또한, 그는 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날카로운 정치적 비판을 퍼부은 뛰어난 정치평론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정치평론에서는 미국의 여러 지식인들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현상을 지적함으로써 “inflexible guardian of the American conscience”(미국 양심의 꺾이지 않는 보루)라는 말도 듣게 되었지만, 한편, 그는 미국의 많은 지식인으로부터 너무 “단순하다”, “너무 naive”하다는 등의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촘스키처럼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도 드물다. 그는 본래 철학의 중요 문제인 인간의 본성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기 위해 경험적인 학문인 언어학을 추구하며, 또한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세상을 비판한다.

2. 촘스키의 성장

촘스키는 자신의 어린 세월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거워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그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것은 libertarian 또는 anarchist라고 불리운다—이 이미 자신이 12살 때에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촘스키의 아버지는 본래 러시아에서 191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촘스키의 아버지는 Czar군대에 징집되는 것이 두려워서 미국으로 왔다고 한다. 촘스키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미국에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1살때 가족이 리투아니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한다.

촘스키는 1928년 12월 7일에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유태인 사회(community)에서 유태인적 전통 속에서 자라났다. 촘스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통적인 히브리학자였다. 그들은 히브리학문, 히브리의 가르침, 유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아주 전통적이었다. 따라서 촘스키도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촘스키가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분야였다. 하지만, 그는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은 없었다.

1946년에 촘스키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는 대학교에 가기전에는 대학교생활에 대한 많은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그것은 머지 않아 실망으로 바뀌었다. 1947년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정치 문제에 뛰어 들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는 그 때의 자신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그때 나는 학교에서 거의 낙제 학생(dropout)이었다. 어떤 강의를 신청할 때는 그 강의에 대한 관심이 생기다가도 그 첫 강의를 듣는 순간 그 강의가 시시해져 버렸다.”

그때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 언어학과 교수인 Zellig Harris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Harris교수의 진보적 정치성향은 촘스키와 마음이 맞았다. Harris의 영향으로 촘스키는 철학과 수학에 관한 대학원 코스를 밟았다. Harris의 강의는 학교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 주변의 식당이나 Harris의 아파트에서 이루어 지곤 했다. 따라서 촘스키의 술회에 의하면, 그는 첫 2년

동안만 대학교에 다녔고, 그 나머지 학부 2년, 또 대학원 과정 동안에는 학교에 거의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츨스키는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줄여서 LSLT)라는 책의 한 chapter를 제출함으로써 1955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는 이 LSLT를 요약하고, 생성문법의 기본적인 생각(idea)을 담아 *Syntactic Structures* 라는 책을 저술했으나, 미국에서는 그것을 발간해 줄 출판사를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조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이고, 생성문법의 생각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책은 결국 1957년 네델란드의 Mouton에 의해 출간되었다.

츨스키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처음에는 MIT의 전자공학연구실험실(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 RLE)에서 일했다. 츨스키는 이 RLE에서 기계번역 계획에 참여했으나, 거기에서의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결국 MIT에 언어와 철학과(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가 생기고 츨스키는 1958년에 그 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961년에 동과의 교수로 되었다.

3. 츨스키의 언어학, 심리학, 철학에 대한 견해

3.1 Skinner의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과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

츨스키가 연구활동을 할 즈음에는 행태주의(behaviorism)의 전성기였다. 행태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Skinner는 행태주의의 몇가지 개념들로 인간의 언어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학자였다. Skinner의 행태주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외부적으로 관찰가능한(observable)한 stimulation(자극), response(반응), history of reinforcement(보강의 역사) 등의 연구로 얻어진 일반적인 원리들로 인간의 복잡한 언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자극, 반응, 보강의 역사 등의 개념은 동물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그 주장은 결국 동물의 행태를 관찰하여 인간만

의 특유한 현상인 언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Skinner에 의하면, 인간의 복잡한 언어현상에 있어서 화자의 역할은 미미하며, 몇개의 인간 외부적 요인으로 인간내부의 현상이라 볼 수 있는 verbal behavior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츨스키는 이러한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심성주의(mentalism)을 주장하였다. 즉, 언어현상은 인간외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언어행태에 있어서 화자의 내부적 역할은 지대한 것이다.

특히 츨스키는 인간의 내부, 즉 마음(mind)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제(mechanism)을 설정하여, 그 기제는 유한하지만 무한한 문장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을 생성문법이라고 불렀다. 즉, 하나의 언어 L의 문법은 그 언어의 모든, 그리고 오직 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해내는 머리 속에 있는 어떤 기제(mechanism)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츨스키는 또 이 기제는 수학에서 공리의 집합을 가지고 정리들을 나열(enumerate)하는 기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학에서 자연수의 집합은 다음과 같이 순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1은 이 집합 속에 있다.
2. 이 집합의 원소들 순서대로 늘어놓았다고 할 때,
x가 이 집합의 원소이면, $x+1$ 도 이 집합의 원소이다.
3. 그 외의 다른 것은 이 집합에 없다.

위의 (2)의 정의가 순환적 정의이다. 이 순환적 정의는 유한한 정의이지만, 무한한 자연수를 정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위에서 보인 정의는 무한한 자연수를 생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에게 언어가 가능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순환정의를 포함하는 생성기제(generative mechanism)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성기제를 문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츨스키에 있어서 심성주의(mentalism)란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 생성기제(generative mechanism)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생산성/창조성(productivity/creativity)

인간은 어렸을 때 배운 말들을 조합하거나 반복하여 그 장래의 언어활동에 적응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인간은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장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길이의 문장을 말할 수 있는데, 위에 말한 생성문법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른 문법학자들은 인간이 이렇게 창조적 언어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들이 과거에 한 말을 analogy에 의해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촘스키는 그 analogy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그 말은 학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은 문법이라는 생성기제(generative procedure)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언제나 새롭고 창조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3 플라톤의 문제(Plato's problem)

플라톤의 문제란 촘스키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How comes it that human beings, whose contacts with the world are brief and personal and limited, are able to know as much as they do know?" (인간들의 세상과의 접촉은 많지 않고, 짧고, 개인적이고, 제한적인데,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될 수 있는가?)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어린이 노예를 데리고 기하학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린이 노예가 이미 기하학의 중요부분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플라톤의 문제라고 한다. 촘스키는 이 문제가 언어의 습득에 있어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i)주어지는 자료도 부족하고(under-determined), (ii)틀린 문장을 말했을 때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다. 어머니가 어린이의 말을 고쳐주는 것 같지만, 거꾸로 어머니는 오히려 어린이식으로 말을 한다.(이런 것을 "엄마식 말" [motheres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어떻게 언어습득하는 짧은 기간동안에 모든 어린이가 상당히 동질적인 언어

를 습득해 내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극이 매우 부족한 상황 속에서, 또한 매우 개별적인 언어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언어습득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어린이는 매우 동질적인 어른의 말을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촘스키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앞서 말한 생성문법의 골격을 이미 생득적으로(innate) 타고 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어린이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문법을 보편문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생득적으로 가지고 나온 생성문법의 골격은 경험에 의해 활성화(activate)되어 개별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개별적인 문법이 나온다는 것이다.

3.4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경험주의자(empiricist)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상태이며, 비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동질적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언어의 습득이 이렇게 생득적이라면, 곧 인간의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도 생득적인 기체가 있음을 암시한다. 즉, 촘스키는 언어의 연구가 곧 마음의 연구의 거울이며, 언어의 연구에서 생득적인 기체가 있음을 확신하므로, 지식을 습득하는 마음에도 생득적인 기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그는 인간의 지식의 성격도 마음의 어떤 일반적인 성격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경험주의를 반대하고, 합리주의를 지지한다. 촘스키에 의하면, 언어의 경우, 보편문법이란 곧 주어진 경험 자료에서 하나의 문법을 세우기 위한 이론적 틀이다. 이 이론적 틀이란 곧 언어기관에 주어진 하나의 제약(constraint)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습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인식, 또는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선형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식 또는 지식의 습득에 따라 구성해야 되는 “이론”이 너무 많아, 그것의 습득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에 아주 날카로운 한계가 주어지지 않다면, 언어와 같은 매우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선형적인 제한이 없다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지식의 체계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특정한 지식체계의 균질적인 습득은 불가능할 것이다.” 촘스키는 이렇게 합리주의를 지지한다. 촘스키는 나아가, 언어학은 경험적인 학문이므로, 언어학이 적절히 추구된다면, 합리주의가 옳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5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biologically determined) 마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 또는 언어에 존재하는 선형적인 틀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앞서 언어에 존재하는 틀이란 바로 생성문법의 원형인 보편문법을 말한다. 그러한 선형적인 틀이 곧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촘스키는 주장한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심장, 허파 등등이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은 아주 정밀하게 분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을 담당하는 두뇌는 분화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험주의자가 말하듯 인간이 본래 “백지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뇌는 분화되지 않은 채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정밀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인식작용을 담당하는 뇌도 자신의 기능에 맞게 분화되어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뇌 속에 일단 마음이 분화되어 있고, (촘스키는 숫자기관도 분화되어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것을 마음기관(mental organs)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 마음기관 속은 modular하게 되어 있어, 그 속에 언어기관도 있고, 앞서말한 숫자기관등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관은 또 경험에 부딪혔을 때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틀 역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언어가 있듯이,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지식이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과 언어는 분명한 생물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6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대한 비판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언어학을 포함한 여러가지 학문에서 나타난

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어떤 것의 사용 또는 기능이 그것의 형식적 구조(formal structure)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언어학에서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의 “정보전달(communication)”의 기능을 최적으로 하도록 그것의 형식적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촘스키 역시 그러한 기능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촘스키는 예를 들어 심장의 구조가 그것의 기능인 피를 순환시키는 데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발생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역시 그 심장은 우리의 유전자 code에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진화에 더 유리하려면, 눈이 뒤에 달렸다면 기능적으로 더 편리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간은 눈이 앞에 두 개 밖에 없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인간의 유전자적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우리의 혀는 원래 음식을 씹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말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는 왜 몸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식으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이 역시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대한 반대 견해이다.

결국 인간의 마음이 현재와 같은 것은 그것의 유전자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인간의 마음의 유전자 코드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의 탐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3.7 몸과 마음의 문제(Mind and Body Problem)

데카르트(Descartes)는 몸은 접촉기계(contact mechanism)로 이루어진 기계적인 것이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마음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과는 다른 “second substance”(제 2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또한 이 “second substance”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과는 달리 우리의 탐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의 정신, 즉 그 “second substance”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다른 동물

들은 단지 오토마톤(automaton)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촘스키가 *Cartesian Linguistics*란 책과 다른 책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는 여러가지 점에서 데카르트의 생각에 동의한다. 첫째, 인간의 마음(좁게는 언어)은 인간에게 종특유하게(species-specific)주어져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둘째, 인간의 언어는 또한 창조적이란 점에서도 데카르트의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결국 몸과 마음의 문제에 있어 이원론자이다. 즉 우리의 마음은 몸과 전혀 다른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던 여러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몸과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이에 비해,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또는 마음이 창조적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몸과 마음의 일원성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생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인간 속에 형성된다. 즉 몸과 마음은 동시에 인간의 모태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다만, 마음 또는 언어가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인간 특유의 종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언어 (확장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앞서 말한 그러한 생성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몸과 마음의 이원성을 극복할 수 있다.

4. 촘스키의 정치평론

4.1 들어가기

촘스키는 정치적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언어학자가 급진주의자(radical)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급진주의자가 우연찮게 언어학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자는 결코 아니며, 사회주의자라 불릴 때는 가끔 있다. 때때로 libertarian이라 불리우기도 하고 anarchist라 불리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를 ‘a man without a sect’ (당파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온당할 것 같다. 그는 오직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정치적 평론

을 할 뿐 어느 캠프에도 가담하고 있지 않다. 촘스키는 매스컴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있는 여러 연설회와 논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사상을 펼쳐 나가고 있다.

촘스키는 어느 연설회에서 정치평론을 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자격(qualifications)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즉, 정치학과 같은 분야에 대한 학위나 경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촘스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헨리 키신저, 월 로스토우 등과 그 외의 직업적인 정치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 즉, 정치평론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 그들과 나의 차이는 그들은 자신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촘스키는 월남전, 중앙아메리카, 중동에서의 문제에 대해 날카롭고 생산적인 비판을 해왔다. 촘스키는 사실의 세계, 경험의 세계를 좋아한다. 그는 많은 통계자료로서 자신의 과격한 발언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다. 미국의 구체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촘스키의 견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미국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의 이론적 견해에 대해 밝히겠다.

4.2 인간의 본성(human nature)

앞서 본 바와 같이, 촘스키는 인간의 본성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자유로운 의지(free will)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본적 주장을 바탕으로 촘스키는 미국의 정치적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Marxism을 하나의 “종교”처럼 숭상하는 사회주의자 모두를 비판한다. 즉, 미국의 corporate capitalism은 현실을 유지하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사람들을 억압하여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Lenin과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백지상태라는 경험주의적 가정하에,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하나의 신인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소위 “진보적” 사상가들 역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인간은 결국 그들이 살아온 역사의 총합이라고 간주한다. 이 역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경험주의자들이며, 그들은 인간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인간의 본성인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하는 것이다.

4.3 미국의 언론

사람들은 미국의 언론이 독립적이고, 미국의 ruling circles에 대해 반항적이라는 일종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촘스키는 바로 이러한 생각에 대해 반대한다. 촘스키에 의하면, 미국의 언론이 독립적이고 미국의 ruling circles에 대해 반항적이기는 커녕, 미국에서 힘을 가진 자를 알게 모르게 돕고 있고, 그들에 대해 순응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언론의 목표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개입으로부터 힘있는 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중의 어리석음과 순응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즉 미국의 언론들도 결국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corporation(대기업)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corporation들은 지배자와 결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모델을 “선전모델”(Propaganda Model)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언론은 여러가지 정치적 학살(astrocities)을 세가지로 분류한다고 한다. 하나는 “건설적인 것,” 다른 하나는 “온화한(benign) 것,” 나머지 하나는 “사악한(nefarious) 것”이다. 건설적인 것은 미국의 이익에 적합하다. 온화한 것은 미국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사악한 것은 적(敵)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다. 이 언론에 관한 선전모델(Propaganda Model)에 따르면, 언론은 건설적인 학살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고, 온화한 학살은 무시하며, “사악한” 학살은 언론에 의해서 맹렬히 비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인도네시아의 학살은 미국에서는 건설적인 것으로 분류된 것인데, 미국 언론에서는 열정적으로 환영하는 식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1972년 부룬디에 있었던 민족 간의 학살은 미국 언론에서 주의를 끌지 못했는데, 이것은 온화한 학살이라 불리워진 것이었다. “사악한” 학살의 예는 크메르루즈에 의한 캄보디아에서의 학살이었다. 이 경우, 많은 미국의 정치평론가들이 나서서 일제히 참상을 비판하였다. 때로는 학살당한 자의 숫자가 과장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4.4 대중의 사고의 조작

츨스키에 의하면, 위에서 보인 식으로 미국의 언론은 대중을 manipulation(조작)한다. 하지만, 미국의 언론이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다만 사전 검열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츨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재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막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어떤 책으로 나오거나 언론에 발표되면 제재를 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행태주의적(behavioristic)이다. 하지만, 미국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언론조작을 통하여 생각 그 자체를 컨트롤하려 한다. 츨스키는 말한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하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느냐이다. 언론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조작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생각이 조작(manipulate)당한다는 것이다.

4.5. 가장한 반대(feigned dissent)

4.3에서 언급한 생각의 control이 이루어진 후에는, 미국에서 토론과 반대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츨스키는 말하기를: 사실 이러한 토론을 격려하는 것이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데, 그것은 모든 참여자가 ground rules(토론에 바탕이 되는 규칙)을 깨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이런 것을 츨스키는 “가장한 반대”(feigned dissent)라고 부른다. 토론과 반대는 그것을 적절한 틀 속에만 넣을 수 있으면, 사회체제를 보강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츨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론이 더욱 격렬할 수록 체제의 선전(propaganda) 효과가 커지는 데, 그것은 암묵적인 가정들이 좀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츨스키는 이와 같은 “가장한 반대”의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정치인의 거짓말을 비판한다. 월남전 당시의 전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Arthur Schlesinger가 그 예이다. 그 당시에 Schlesinger는 전쟁에 대한 ‘책임’의 접근법(responsible approach)을 취하고 있었고, 그 반대 쪽에는 전쟁의 지속을 주장하고, 전쟁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던 Joseph Alsop이 있

었다. Schlesinger는 Alsop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도 그 끝에 “우리는 Alsop 이 맞기를 기도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촘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Schlesinger가 전쟁을 반대한 이유는 그 전쟁이 비도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쟁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조짐이 보였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월남전쟁이 승리로 돌아갈 것이 확실했다면, Alsop과 Schlesinger는 연합하여 전쟁을 승인했을 것이다. 그 당시 Alsop과 Schlesinger는 각각 전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두 여론의 꼭대기에 서서 미국의 여론을 묶어 놓았던 것이다.

4.6 외교정책의 비판

촘스키는 미국의 여러가지 저명한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에 대한 많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조소섞인 비판도 받았다. 촘스키의 비판적 태도는 결국 도덕적 원리에서 나온다. 즉, 미국 외교정책이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면서도, 그 정책이 루스벨트(Roosevelt)가 주장했던 것과 같은 네가지 자유, 즉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슬로건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촘스키는 “미국의 이익”과 같은 것을 “다섯번째의 자유”(The Fifth Freedom)이라고 하면서, 그 자유란 곧 “강탈하고 착취하는 자유”(freedom to rob and exploit)라고 이름붙인다. 촘스키는 지식인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미국의 외교정책이 “거짓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 자주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데, 이런 현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며, 신비스러운 미국의 “초현실적인 목표”라고 비판다.

5. 에필로그

촘스키는 뛰어난 강연자이다. 그는 여러 군데에서 연설을 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책을 썼다. 강연 때 마다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는 촘스키가

생각하는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진리가 prevail할(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내기를 건 적이 있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나의 그에 대한 신뢰는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그를 믿어서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 이것을 파스칼의 내기라고 한다. 만일 내가 희망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희망이 없는 것을 내가 보여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희망이 가능하고,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촘스키는 언어학의 혁명을 일으켰고, 철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정치평론의 분야에서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촘스키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그가 통합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촘스키는 아직 생존한 사상가이며, 65세가 지난 나이에도 미국 MIT에서 언어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의 강연스케줄은 아직도 꽉 차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의 언어학, 정치학 등의 여러 방면에서의 활약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며, 그의 날카로운 지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 용 문 헌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_____ (1966) *Cartesian Linguistics*. New York: Harper and Row.
 _____ (1968) *Language and Min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_____ (1972) *Problems of Knowledge and Freedom*. London: Barrie and Jenkins.
 _____ (1975) *Reflections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_____ (1977a)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New York: North Holland.

- _____. (1977b) *Language and Responsibility*. New York: Pantheon.
- _____. (1980) *Rules and Represent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82) *The Generative Enterprise*.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_____.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_____. (1988) *Language and Problems of Knowledge: The Managua Lectur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D'agostino, F.(1986) *Chomsky's System of Ideas*. Oxford: Clarendon Press.
- Harman,G.,ed.(1974) *On Noam Chomsky: Critical Essays*. A Doubleday Anchor Original.
- Peck, J., ed. (1987) *The Chomsky Reader*. London: Serpent's Tail.
- Rai, M. (1995) *Chomsky's Politics*. London: Verso.

Abstract

Noam Chomsky : His Life and Thought

Myung-Yoon Kang

In this paper, I have sketched the life of Noam Chomsky, one of the leading American thinkers, and surveyed his ideas in the realms of Linguistics, Philosophy, Psychology and Politics. The point of departure for Chomsky's pursuit in the areas of Linguistics was his idea of Generative Grammar. This idea revolutionized the Linguistics at the time, when the Structuralism was dominant. He applied his ideas in Linguistics to the areas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arguing for Rationalism and repudiating Empiricism. On the other hand, he was one of the most shrewd and independent thinker in Politics. He forcefully criticized American foreign policy, which, according to him, is dominated by America's self-interest, but is often camouflaged with the idea of freedom on the part of the target nation. Also, American media were a favorite target for Chomsky's criticism. Chomsky argues that American media help buttress the interests of American ruling circles; While the dissent by the media is freely allowed in America, it often functions as stabilizing American public opinions.